

재킷 스타일과 색, 셔츠 스타일이 남성의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강승희* · 이명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Effect of the Jacket Style and Color, and Shirt Style on Men's Image Perception

Seung-Hee Kang* · Myoung-Hee Lee⁺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7. 10. 22 토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tyle and the color of jacket, the style of shirt, and stimulus-manufacturing method on men's image perception. A quasi-experimental method by questionnaire was used, and the experimental design was $2 \times 2 \times 2 \times 2$ (jacket style \times jacket color \times shirt style \times stimulus-manufacturing method) factorial design. Computer simulation picture and photograph were used for stimulus-manufacturing method. Subjects were 377 women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reliability coefficient, and three-way ANOVA.

The men's image derived five dimensions by factor analysis; neatness, ability, activity, individuality, and sociability. Tailored jacket with jean pants was evaluated higher in ability, individuality, and sociality than jumper with jean pants, and jumper was evaluated higher than tailored jacket in activity. The indigo jacket was evaluated lower in individuality in the picture stimuli than in the photograph stimuli. The beige tailored jacket with jean pants was evaluated higher in activity than indigo tailored jacket. However, the indigo jumper was evaluated higher in activity than beige jumper. Dress shirt under the tailored jacket was evaluated higher in ability and individuality than T-shirt under the tailored jacket. T-shirt under the jumper was evaluated higher in activity than dress shirt.

Key words: jacket(재킷), shirt(셔츠), color(색), stimulus-manufacturing(자극물 제작), image perception(이미지 지각)

I. 서론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데는 별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짧은 대화나 상대방을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수 있다. Allport¹⁾는 짧은 시간의 지각이 이루어질 때 처음 본 사람의 나이, 직업, 계층, 성격, 깔끔함, 성실성이 어느 정도 평가된다고 하였다.

타인을 만났을 때,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단서에 의해 평가된다. 이때 의복은 착용자를 지각하는데 있어 신체조건과 함께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의복색은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2),3),4)}

한편 의복의 유니섹스화는 남녀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패션상품의 주 소비계층이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다. 주 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직장인들의 비즈니스 캐주얼웨어에 대한 관심과 착용이 증가하게 되었으며,⁵⁾ 남성들은 직장 근무 시에 청바지에 테일러드 재킷이나 캐주얼 재킷을 착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테일러드 재킷은 과거에는 남성들에게 포말웨어의 복장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청바지와 함께 착용하는 경우가 증가함으로써 테일러드 재킷과 점퍼와 같은 캐주얼 재킷의 구분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남성의 의복 착용에 대한 이미지 지각의 연구가 필요시 된다.

지금까지 이미지 지각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극물을 제시하면서 의복 스타일과 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자극물은 사진, 그림, 또는 사진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이은미⁶⁾는 정장스타일과 색, 넥타이 색, 착용자의 연령을 각각 2수준으로 조작한 사진 자극물을 이용하여 연구하였으며, 신소진⁷⁾은 노출형태에 변화를 준 사진 자극물을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였다. 남미우⁸⁾는 의복 유형과 색상을 변화 시킨 그림 자극물을 이용하여 정장과 캐주얼의 차이를 조사하였고, 이향미, 김재숙⁹⁾은 사진을 CAD에 의해 컴퓨터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으로 자극물을 제작

한 후 남성복의 격식수준과 의복 색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정교¹⁰⁾는 의사 가운을 착용하고 있는 남자의 그림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자극물은 실제 인물 사진보다는 인위적이며 의복의 영향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의복 이미지 연구를 볼 때 자극물 제작 방법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면서 재킷과 함께 속에 반쳐 입는 셔츠 스타일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 외모의 이미지 지각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바지와 함께 착용한 재킷 및 점퍼의 스타일과 색, 재킷 속에 반쳐 입은 셔츠 스타일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각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극물 제작방법, 남성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재킷 스타일, 재킷 색, 셔츠 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남성의 사회생활에서 바람직한 외모단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의 이미지 지각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상대방의 성격, 능력, 의도, 감정, 생각을 살피고,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예상을 하게 된다. 즉 물리적 속성에 근거하여 정보를 처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맥락이나 지식에 근거하여 정보를 처리하기도 한다.¹¹⁾ 그러나 우리는 자극을 있는 그대로 감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특정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자극 의미에 대해서 많은 유사한 기대들을 발달시키면서, 모든 종류의 단서들에 대한 유사한 해석들을 배우며, 그 결과를 의사소통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¹²⁾ 그러므로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의 핵심은 단서들을 동시에 접하게 될 때, 제시되는 단편적인 여러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 전반적인 지각

으로 통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최초로 인상형성에 있어서 의복의 영향을 밝히려는 Hoult¹³⁾의 연구는 실제 인물사진들의 얼굴과 옷을 입은 몸체를 잘라서 짜지어 맞춘 사진들을 가지고 평가시켰다. 그 결과 같은 얼굴과 다른 의복유형의 조합에 따라 모델의 개인적 특성(지성적, 협동적)을 다르게 평가하였다. Douty¹⁴⁾는 실제 모델들의 모습을 칼라 슬라이드로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의복유형에 따라 같은 모델이라도 사회적 지위와 음-양 성격특성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rn과 Gurel¹⁵⁾은 선 그림을 이용하여 남자의 외모와 관련된 고정관념을 측정하였는데 관례적으로 옷을 입은 모습은 보수적으로 지각되었고, 인습적인 것에서 벗어난 옷차림은 개방적인 정치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지각되어졌다. 송선옥¹⁶⁾의 연구에서는 20대 중반의 남자 사진을 의복유형(정장, 세미캐주얼, 캐주얼), 얼굴형(매력적, 중간 매력적, 비 매력적), 체형(세장형, 균육형, 비만형)으로 분류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얼굴형은 친근성, 의복유형은 활동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숙, 김희숙¹⁷⁾의 연구에서는 외모 차원의 호의성 지각이 의복범주와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상호작용하였다.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이미지 지각은 얼굴 및 체형과 함께 의복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단서는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전달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 남성 의복의 이미지 지각

남성복 유형에 대하여 Bell¹⁸⁾은 4가지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는데 격식차림 스타일은 가장 매력적으로, 보수적 스타일은 지적으로, 대담한 스타일은 사교적으로 평가되었고 캐주얼 스타일은 인기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미우, 강혜원¹⁹⁾은 남성복을 의복 유형(정장, 캐주얼), 형태(유행형, 기본형), 색(유행색, 기본색)을 변화시켜 연구한 결과 의복 유형 및 형태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났으나 유행색 여부에 의한 영향은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선경²⁰⁾의 연구에서 남성의 의복유형은 지적, 매력적 인

상 평가에서 영향이 커으며 인물의 특징과 의복스타일의 특징은 매력성, 성공성 평가의 단서가 되며 직업적 추론이 가능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지현²¹⁾은 남학생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칼라(collar) 형태를 선정하고 가장 많이 착용하는 외의(캐주얼 재킷, 점퍼)를 입혀 그에 대한 인상을 연구하였는데 재킷과 베튼다운 칼라셔츠의 조합은 점퍼와 베튼다운 칼라셔츠의 조합보다 매우 지적으로 지각되었으며, 라운드 형의 네크라인과 점퍼를 착용하였을 때는 매우 활동적인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송선옥, 이인자²²⁾의 연구에서는 의복유형이 남자의 인상 중 활동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은미, 강혜원²³⁾은 정장의 색과 스타일, 넥타이색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40, 50대 관찰자는 청년 남성이 싱글정장보다 더블정장을 착용하였을 때 더 세련되고 능력있게 평가한 반면, 싱글정장을 더 활동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 베이지색을 감색보다 부드럽고 권위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향미, 김재숙²⁴⁾의 연구에서는 남자 교사의 의복색은 평가적 차원과 사교적 차원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주어 감색 의복은 적벽돌색보다 지적이고 신뢰감이 드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사교성은 낮게 지각되었다. 최유진, 이명희²⁵⁾는 재킷, 와이셔츠, 넥타이 색에 따른 남성 정장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재킷은 진남색이 능력, 품위, 남성성 차원에서 회색 재킷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고, 흰색 셔츠는 파란색 셔츠보다 남성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파란색 넥타이는 품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연구방법은 준 실험방법으로 실험설계는 피험자간(between-subjects) 설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남성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자극물

자극물은 재킷, 셔츠, 청바지를 착용한 남성의 모습으로서 사진과 그림의 2종류로 제작하였다. 재킷은 남성들이 외출할 때 착용빈도가 높은 테일러드 재킷과 캐주얼 재킷을 사용하였으며, 캐주얼 재킷은 수티엥(soutien) 칼라의 점퍼를 택하였다. 재킷 색은 2가지 색을 사용하였는데, 국내 트래디셔널 캐주얼 브랜드에서 시즌에 관계없이 기본색과 기본 배색으로 사용하며²⁶⁾ 남성들의 선호도와 소유도가 높은^{27),28)} 베이지(beige)색과 진남색을 택하였다. 재킷 속에 착용한 셔츠 스타일은 두 종류로서 와이셔츠 스타일의 캐주얼 셔츠와 라운드 네크라인의 티셔츠로서 모두 흰색을 사용하였다.

자극물의 모델은 20대 중반의 남자대학생으로 사진자극물의 경우 모델에게 흰색의 셔츠 위에 베이지색 테일러드 재킷과 베이지색 점퍼를 차례로 입혀 전신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 사진을 칼라스캐너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입력한 후, Adobe 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 목적에 맞게 재킷의 색을 변화시켰다. 그림자극물은 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물사진과 같은 재킷 스타일, 재킷 색, 셔츠 스타일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그림의 얼굴 부분은 사진자극물에서 분리하여 합성하였는데, 이는 그림으로 단순화된 얼굴에 의해 이미지 지각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자극물의 뒤 배경은 연회색으로 통제하였다.

완성된 자극물은 재킷 스타일(2), 재킷 색(2), 셔츠 스타일(2), 자극물 제작방법(2)으로 변화를 준 것으로서 총 16 종류로 분류되었다. 자극물은 5×16cm의 크기로 출력한 후 사용하였다.

2) 의미미분척도의 형용사쌍 선정

자극물 속의 의복착용자에 대한 응답자의 이미지 지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자유기술식 응답법과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다. 자유기술식 응답은 여대생 96명에게 자극물을 제시하여 사전조사를 하였다. 1명의 피험자가 의복과 헤어스타일이 각각 다르게 조합된 2개의 자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는데, 자극물을 보고 연상되

는 모든 형용사를 제한 없이 자유응답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29),30),31),32)}에서 적절한 형용사 용어를 수집하였다. 수집 된 용어는 중복되는 것과 조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외시켜, 총 24개의 형용사쌍을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서울 근교의 여대생과 직장 여성 377명으로서 여대생이 180명(55.7%), 직장여성이 167명(44.3%)이었다. 직장여성의 직업은 간호사(9.8%), 교사 및 강사(15.0%), 보험설계사(20.7%), 은행원(30.8%), 회사원(23.7%)이었다. 연령 분포도를 보면 18-19세가 62명(16.4%), 20-29세가 249명(66.0%), 30-39세가 56명(14.9%), 40-47세가 10명(2.7%)이었다. 한 개의 자극물에 여대생과 직장여성이 각각 10명 이상 반응하도록 하였다. 1명의 조사대상자가 2개의 자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자극물을 보고 각 형용사에 대하여 자극물에서 받은 이미지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게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요인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 산출,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이미지 지각의 요인분석

의복이미지를 평가하는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24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5개 요인을 택하였다. 각 요인에서 부하량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항을 요인별로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5개의 요인이 선택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의복이미지 지각의 요인분석

요인 1. 단정성	요인부하량
단정한 - 단정하지 않은	.81
점잖은 - 점잖지 않은	.78
깔끔한 - 깔끔하지 않은	.70
예의 바른 - 예의 없는	.68
차분한 - 요란한	.65
신중한 - 경솔한	.54
전체변량(%) = 17.08%	누적변량 = 17.08%
고유치 = .410	α 신뢰도 = .83
요인 2. 능력	요인부하량
전문적인 - 전문적이지 않은	.71
유능한 - 무능한	.70
품위 있는 - 품위 없는	.64
노련한 - 미숙한	.63
지적인 - 지적이지 않은	.59
세련된 - 촌스러운	.57
전체변량(%) = 13.91%	누적변량 = 30.99%
고유치 = .334	α 신뢰도 = .81
요인 3. 활동성	요인부하량
캐주얼한 - 포말한	.75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68
보기 좋은 - 보기 싫은	.63
답답한 - 편안한(R)	-.52
자연스러운 - 부자연스러운	.51
전체변량(%) = 12.69%	누적변량 = 43.68%
고유치 = .305	α 신뢰도 = .74
요인 4. 개성	요인부하량
눈에 띠는 - 눈에 띄지 않는	.73
남들과 다른 - 남들과 비슷한	.69
개성 있는 - 개성 없는	.67
무난한 - 무난하지 않은(R)	-.56
자신감 있는 - 자신감 없는	.43
전체변량(%) = 10.47%	누적변량 = 54.15%
고유치 = .251	α 신뢰도 = .73
요인 5. 사교성	요인부하량
사교적인 - 비사교적인	.78
적극적 - 소극적	.68
전체변량(%) = 7.02%	누적변량 = 61.17%
고유치 = .169	α 신뢰도 = .66

R : 반대로 해석하는 문항

요인 1은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점잖은-점잖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단정성 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전문적인-전문적이지 않은, 유능한-무능한 등이 포함되어 능력 요인이라 칭하였다. 요인 3은 캐주얼한-포말한, 활동적인-비활동적인, 등이 포함되어 활동성 요인이라고 하였고, 요인 4은 눈에 띠는-눈에 띄지 않는, 개성 있는-개성 없는 등이 포함되어 개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사교적인-비사교적인, 적극적-소극적 등이 포함되어 사교성 요인이라고 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43 이상이고 요인 5까지의 누적 변량은 61.17%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단정성, 능력, 활동성, 개성, 사교성이 각각 .83, .81, .74, .73, .66으로서 신뢰도가 만족할 만하였다.

이상에서 결정된 5개의 요인은 요인의 문항 점수를 합하여 문항 수로 나눈 후 계속되는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자극물 제작방법, 재킷 스타일, 셔츠 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

자극물 제작방법, 재킷 스타일, 셔츠 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주효과를 보면 자극물 제작방법은 활동성, 개성, 사교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단정성, 능력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각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3가지 요인 모두에서 사진자극물이 그림자극물에 비해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사진자극물이 더 활동적이고 개성적이며 사교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것은 그림이 사진보다 더 경직된 느낌을 주므로 그림자극물이 활동성이나 사교성이 더 낮게 평가되었다고 해석된다. 이는 김재숙, 김희숙³³⁾의 연구에서 사교성 요인은 실물과 실물사진이 가장 사교적으로, 칼라그림은 비사교적으로 평가되었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재킷 스타일은 능력, 활동성, 개성, 사교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재킷이 점퍼보다 능력, 개성, 사교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점퍼가 재킷보다 활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점퍼는 활동성이 강조된 의복으로 대부분의 남성들이 근무시간에 착용하는 의복이 아니므로 테일러드 재킷보다 더 활동성이 높게 지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테일러드 재킷에 청바지 차림은 정장수트보다 포멀하지 않은 차

〈표 2〉 자극물 제작방법, 재킷 스타일, 셔츠 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변량원	df	단정성 F	능력 F	활동성 F	개성 F	사교성 F
자극물 제작방법(A)	1	.01	.24	7.41***	15.85***	10.67***
재킷 스타일(B)	1	.03	21.08***	17.06***	24.19***	5.86*
셔츠 스타일(C)	1	.03	.39	10.39***	2.69	.43
A×B	1	6.18*	29.72***	7.29***	25.41***	18.71***
A×C	1	18.76***	1.20	1.66	9.37***	13.34***
B×C	1	1.38	5.31*	.50	9.34***	.26
A×B×C	1	11.42***	9.64***	2.16	3.68	1.09
집단 내 오차	746					
변인	속성	N	M	M	M	M
자극물	사진	449	4.76	3.17	4.47	3.14
제작방법	그림	305	4.79	3.16	4.30	2.81
재킷	재킷	361	4.73	3.26	4.22	3.16
스타일	점퍼	393	4.81	3.07	4.56	2.87
셔츠	티셔츠	404	4.75	3.15	4.51	2.96
스타일	와이셔츠	350	4.80	3.18	4.26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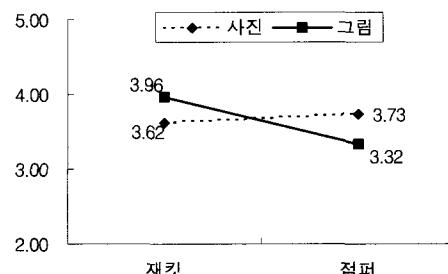
*p<.05, **p<.01, ***p<.001

립이지만 수트차림의 연장으로 보아 점퍼보다 더 능력 있게 보인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청바지에 테일러드 재킷 착용이 청바지에 점퍼 착용보다 개성적으로 보여 진 것은 청바지에 점퍼 착용이 일반적인 캐주얼 의복 착용 방법이라는 견해를 지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이는 송선옥, 이인자³⁴⁾의 연구에서 의복유형이 얼굴형과 체형보다 특히 활동성 차원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 내용과 유사한 결과였다.

셔츠 스타일은 활동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변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셔츠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라운드 네크라인의 티셔츠가 와이셔츠보다 활동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티셔츠와 와이셔츠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티셔츠는 니트 소재로 와이셔츠보다 구김이 덜 가고 실용적인 면이 높으므로 티셔츠가 기능적이며 활동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이지현³⁵⁾의 칼라(collar)에 대한 인상 평가 연구에서 라운드형의 네크라인이 활동적으로 평가된 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상호작용효과에서 능력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재킷 스타일에 따른 의미있는 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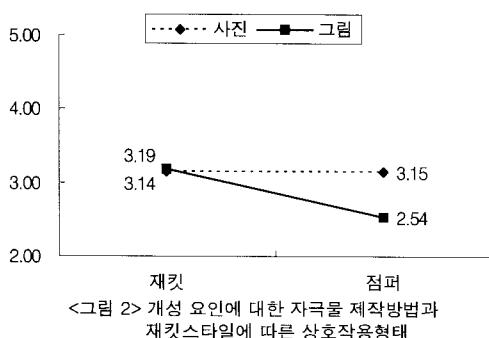


〈그림 1〉 능력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재킷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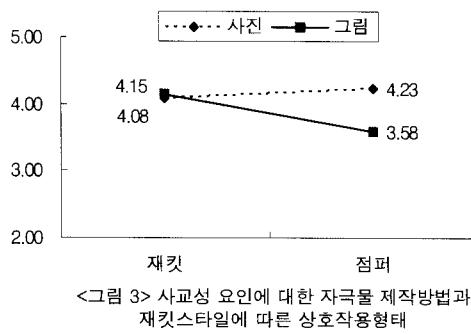
〈그림 1〉에서 사진자극물은 재킷 스타일에 따른 능력 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그림자극물은 능력 평가의 차이가 많아 테일러드 재킷보다 점퍼가 능력이 낮게 지각되었다. 즉 사진보다 그림자극물에서 능력평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라 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개성 요인의 상호작용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사진자극물은 재킷 스타일에 따른 개성 평가의 차이가 없었으나 그림자극물은 개성 평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점퍼가 개성이 더욱 낮게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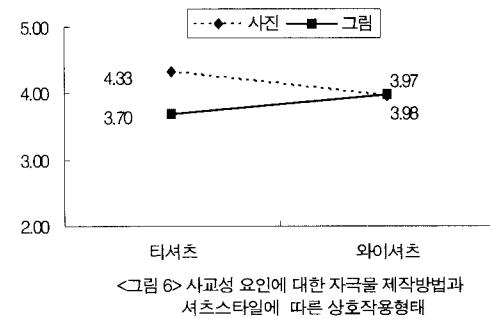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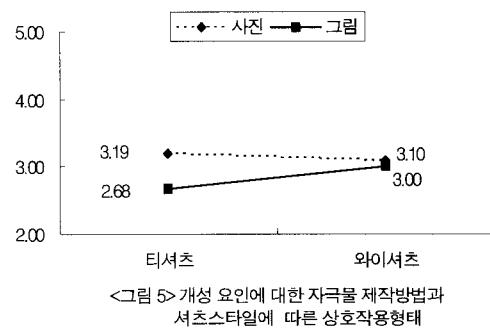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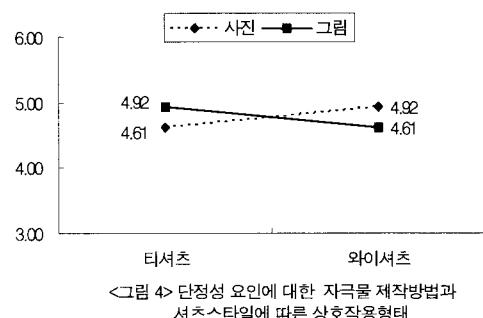
사교성 요인의 상호작용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보면 사진자극물은 재킷 스타일에 따른 사교성 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그림자극물의 경우 점퍼 차림이 사교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자극물 제작방법과 재킷 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에 있어 사진자극물은 재킷 스타일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그림자극물의 경우 능력, 개성, 사교성 요인에서 점퍼보다 테일러드 재킷 착용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자극물 제작방법과 셔츠 스타일에 따라 단정성, 개성, 사교성 평가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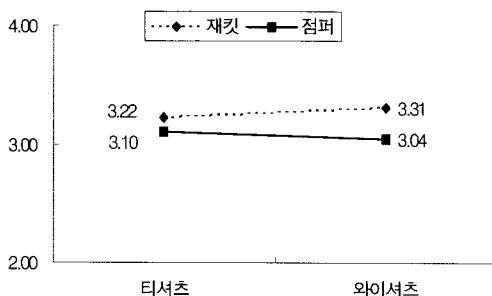
단정성 평가에서 사진자극물은 와이셔츠를 착용한 경우 티셔츠를 착용했을 때보다 더 단정하게 지각되었으나, 그림자극물은 티셔츠를 착용했을 때 더 단정하게 지각되었다(<그림 4>). 개성 평가의 경우 와이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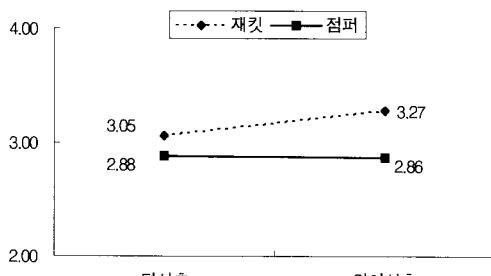
는 자극물에 따른 개성 평가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티셔츠는 차이가 있어 사진자극물보다 그림자극물의 경우 더 개성이 낮게 지각되었다(<그림 5>). 사교성 평가에서 와이셔츠는 자극물에 따른 사교성 평가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티셔츠는 차이가 있어 사진자극물이 그림자극물보다 사교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다(<그림 6>).

재킷 스타일과 셔츠 스타일에 따라 능력 요인과 개성 요인은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7〉, 〈그림 8〉과 같다.



〈그림 7〉 능력 요인에 대한 재킷스타일과
셔츠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8〉 개성 요인에 대한 재킷스타일과
셔츠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7〉에서 테일러드 재킷은 속에 와이셔츠를 착용한 경우 티셔츠를 착용했을 때보다 더 능력 있게 지각되었고, 점퍼는 속에 티셔츠를 입은 경우 와이셔츠를 착용했을 때보다 더 능력 있게 지각되었다. 이는 테일러드 재킷인 경우 수트와 드레스셔츠라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와이셔츠를 착용한 경우 티셔츠를 착용한 경우보다 더 능력 있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점퍼는 테일러드 재킷보다 활동적인 의복이

므로 점퍼 속에 착용하는 셔츠도 더 기능적인 스타일을 착용하여야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생각된다. 이는 테일러드 재킷에 버튼다운 칼라셔츠는 점퍼에 버튼다운 칼라셔츠보다 지적으로 인식된 선행연구³⁶⁾와 유사한 결과였다.

개성 요인의 상호작용형태를 〈그림 8〉에서 보면 점퍼는 셔츠 스타일에 따른 개성 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테일러드 재킷은 셔츠 스타일에 따른 개성 평가의 차이가 나타나 재킷 속에 티셔츠를 착용한 경우 개성이 더 낮게 지각되었다.

단정성과 능력 요인은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표 3〉, 〈그림 9〉, 〈그림 10〉과 같다.

〈그림 9〉에서 단정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를 보면, 재킷 스타일 전반에 걸쳐 그림자극물이 사진자극물보다 더 단정하게 평가되었으나, 점퍼 속에 와이셔츠를 착용한 자극물에 있어서는 사진자극물이 더 단정하게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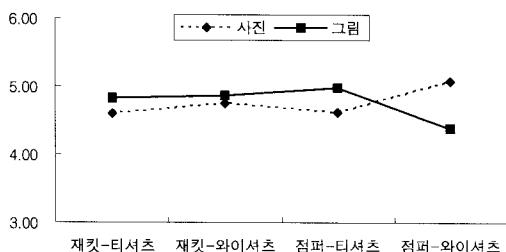
〈그림 10〉에서 능력 평가의 상호작용형태를 살펴보면 사진자극물인 경우 재킷 스타일과 셔츠 스타일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자극물인 경우 테일러드 재킷에 와이셔츠를 착용한 자극물이 가장 능력 있게 평가되었고, 점퍼에 와이셔츠를 착용한 경우 가장 능력 없게 평가되었다.

그림자극물인 경우 속에 입은 셔츠 스타일에 따라 자극물의 지각에 영향을 받으며 사진자극물보다 그림자극물이 더 다양하게 평가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속에 입은 셔츠가 그림인 경우 사진보다 더욱 뚜렷하게 묘사되었기 때문에 재킷에 티셔츠를 입은 것보다 재킷에 와이셔츠를 입은 모습이 더 능력있게 지각되었다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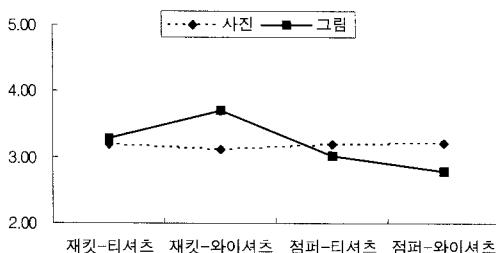
〈표 3〉 단정성, 능력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재킷 스타일, 셔츠 스타일에 따른 평균치

요인	유형 셔츠	테일러드 재킷		점퍼	
		티셔츠	와이셔츠	티셔츠	와이셔츠
단정성	사진	4.59	4.75	4.62	5.08
	그림	4.83	4.86	4.98	4.39
능력	사진	3.18	3.10	3.18	3.20
	그림	3.28	3.71	3.01	2.78

재킷 스타일과 색, 셔츠 스타일이 남성의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그림 9> 단정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재킷스타일, 셔츠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10> 능력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재킷스타일, 셔츠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3. 자극물 제작방법, 재킷 스타일, 재킷 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

자극물 제작방법, 재킷 스타일, 재킷 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

미지 지각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재킷 색에 따른 결과를 볼 때 모든 요인은 주효과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베이지 색과 남색이 모두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착용하는 저체도의 색이므로 차이가 없었다고 해석된다.

상호작용효과에서 개성 평가는 자극물 제작방법과 재킷 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형태는 <그림 11>과 같다. 베이지색은 자극물에 따른 개성 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남색은 차이가 있어 사진자극물보다 그림자극물의 경우 남색이 더 개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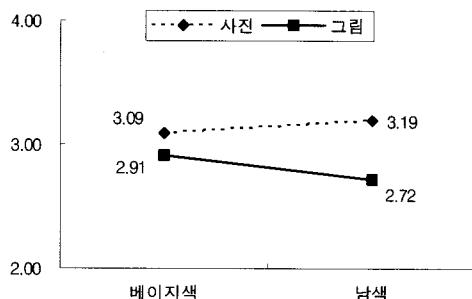
활동성 요인은 재킷 스타일과 재킷 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2>와 같다. 테일러드 재킷은 베이지색일 때, 점퍼는 남색일 때 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베이지색은 재킷 스타일에 따른 차이가 낮았으나 남색은 재킷 스타일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남색 테일러드 재킷은 활동성이 낮게 지각되었는데 이는 남색이 일반적인 남성의 정장으로 착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동성이 낮게 지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재킷 스타일에 따른 활동성 차이가 색에 의해서 다르게 영향 받

<표 4> 자극물 제작방법, 재킷 스타일, 재킷 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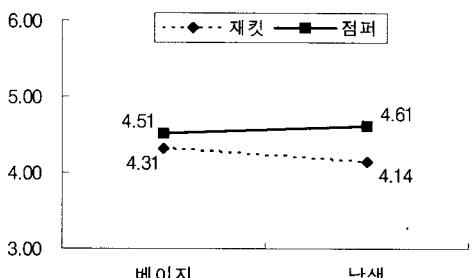
변량원	df	단정성 F	능력 F	활동성 F	개성 F	사교성 F
자극물 제작방법(A)	1	.22	.30	6.28*	16.02***	11.69***
재킷 스타일(B)	1	.60	17.87***	17.41***	22.97***	6.43*
재킷 색(C)	1	.25	1.02	.15	.72	.94
A×B	1	3.87*	25.83***	5.88*	24.01***	18.08***
A×C	1	.38	.49	.36	5.31*	.01
B×C	1	.52	.04	3.91*	.02	.05
A×B×C	1	3.76	.02	.80	1.89	.43
집단 내 오차	746					
변인	속성	N	M	M	M	M
자극물	사진	449	4.76	3.17	4.47	3.14
제작방법	그림	305	4.79	3.16	4.30	2.81
재킷 스타일	재킷	361	4.73	3.26	4.22	3.16
	점퍼	393	4.81	3.07	4.56	2.87
재킷 색	베이지색	364	4.76	3.13	4.41	3.02
	남색	390	4.78	3.20	4.38	3.00

*p<.05, **p<.01, ***p<.001

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개성 요인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12> 활동성 요인에 대한 재킷스타일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V. 결론

본 연구는 자극물 제작방법과 남성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재킷 스타일, 재킷 색, 셔츠 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서울 근교의 여대생과 직장여성 377명이었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남성 캐주얼웨어 이미지 지각의 차원은 단정성, 능력, 활동성, 개성, 사교성의 5 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자극물 제작방법, 재킷 스타일, 셔츠 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자극물 제작방법은 활동성, 개성, 사교성 차원의 지각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단정성, 능력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재킷 스타일은 능력, 활동성, 개성, 사교성 차원의 지각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재킷은 점퍼보다 능력, 개성, 사교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점퍼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셔츠 스타일은 활동성 요인의 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라운드 네크라인의 티셔츠가 와이셔츠보다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자극물 제작방법과 재킷 스타일에 따라 능력, 개성, 사교성 요인은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사진자극물보다 그림자극물은 청바지에 점퍼를 착용했을 때 능력, 개성, 사교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재킷 스타일과 셔츠 스타일에 따라 능력 요인과 개성 요인은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테일러드 재킷은 안에 와이셔츠를 착용했을 때 티셔츠를 착용한 경우보다 능력과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점퍼는 속에 티셔츠를 입은 경우 와이셔츠보다 능력이 높게 지각되었다. 자극물 제작방법, 재킷 스타일, 셔츠 스타일의 3개 변인에 의해 단정성과 능력 요인은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점퍼 속에 와이셔츠를 착용한 경우는 그림보다 사진자극물이 더 단정하게 지각되었다.

셋째, 자극물 제작방법, 재킷 스타일, 재킷 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개성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과 재킷 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사진보다 그림자극물에서 남색의 개성이 더 낮게 평가되었다. 활동성 요인은 재킷 스타일과 재킷 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테일러드 재킷은 베이지색일 때, 점퍼는 남색일 때 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사진이나 컴퓨터 그림자극물에 대한 이미지는 외모단서에 따라 다양하게 지각되었으나 그림이 사진보다 더욱 다양하게 평가되었다. 또한 사진자극물이 그림자극물보다 이미지 지각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사진자극물이 그림자극물에 비해 좀 더 본인의 모습과 비슷하고 친근하며 이미지의 왜곡도 줄어들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능력 요인은 자극물 제작방법 자체의 영향보다는 재킷 스타일에 영향을 받는 편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바지 위에 착용하는 상의의 옷차림에 따라서 시각적 평가가 달리 나타남이 확인되었으므로 남성들은 간편한 캐주얼 복장을 할 때도 사회

적 상황이나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긍정적인 효과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테일러드 재킷 안에 와이셔츠를, 점퍼 안에는 티셔츠를 착용하였을 때 더 능력있는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므로 겉옷에 반쳐 입는 셔츠나 면풀러 등을 이용한 코디네이션에 관심을 지니면서 어울리는 스타일을 연출한다면 남성들은 의복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더욱 능력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셋째, 활동적인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절한 분위기를 원하는 남성들은 라운드 티셔츠나 남색 점퍼 차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넷째, 사진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그림자극물은 평가 요인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의복의 시각적 평가를 위해서 그림자극물을 제작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자극물을 실물과 같은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하여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자극물 제작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을 받아 사용한 사진자극물은 한 가지 색이라도 명도와 채도의 변화가 가능하였으나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림자극물은 음영을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한 가지 색으로 표현되어 두 자극물의 재킷 색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연구에 사용한 자극물들은 실물과 차이가 있으므로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표본추출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울 및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여대생과 직장여성으로 한정하였고 피험자 선정에 있어서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령층 및 남성에게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 및 직업, 성별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Allport, G.W.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enry Holt & Co. p. 500.
- 2) 정해선, 강경자 (2004). 상의색과 모자색,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2(3), pp. 354-368.
- 3) 이명희, 강승희 (1998). 장신구와 재킷 색이 여성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pp. 1111-1121.
- 4) 이주현, 강혜원 (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 Dress 및 Pants-Blouse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pp. 984-994.
- 5) 직장인 착장 자유화 바람 (2006. 7. 27). Today Fashion, 자료검색일 2006. 10. 17, 자료출처 <http://www.ktnews.com/>
- 6) 이은미 (1992). 남성 정장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7-30.
- 7) 신소진 (1994).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인상형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9-85.
- 8) 남미우 (1992).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34-39, 121-123.
- 9) 이향미, 김재숙 (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대전 지역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pp. 312-320.
- 10) 이정교 (2000). 의사가운의 형태 및 색상과 관찰자 특성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9-21, p. 45.
- 11) 오세진, 김형일, 임영석, 현명호, 김병선, 김정인, 김한준, 양병화, 이재일, 양돈규, 최창호, 이장한(1999). 인간행동과 심리학. 서울: 학지사, p. 78, pp. 247-248.
- 12) 김정희 (2002).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pp. 402-408.
- 13) Hoult, T.F. (1954). Experimental measurement of clothing as a factor in some social ratings of selected American 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3), pp. 324-328.
- 14) Douty, H.I. (1963). Influence of clothing on perception of person. *Journal of Home Economics*, 55(3), pp. 197-202.
- 15) Horn, M.J., & Gurel, L.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p. 161.
- 16) 송선옥 (1999).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 전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75-76.
- 17) 김재숙, 김희숙 (1992). 의복 범주가 젊은이의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유형성 및 착용자의 체형과 관련지어. *한국의류학회지*, 16(4), pp. 371-378.
- 18) Bell, E.L. (1991).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pp. 8-12.
- 19) 남미우, 강혜원 (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3), pp. 311-326.

- 20) 이선경 (1993). 남성복 유형과 얼굴 매력성이 직업특성 및 인상추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4-17.
- 21) 이지현 (1993). 남성 캐주얼웨어의 칼라형태와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5-78.
- 22) 송선옥, 이인자 (2001).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pp. 369-378.
- 23) 이은미, 강혜원 (1994).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남성 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2), pp. 197-210.
- 24) 이향미, 김재숙, 앞의 책, pp. 312-320.
- 25) 최유진, 이명희 (2004). 남성의 재킷, 와이셔츠, 넥타이 색의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 연구. *복식*, 54(6) 중보판, pp. 131-140.
- 26) 오현지 (2004). 트래디셔널 캐주얼웨어의 색채 계획을 위한 색채 특성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6.
- 27) 김미영 (2002). 일반색·의복색 선호도와 의복색 선호도의 특성 및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26(8), pp. 1165-1176.
- 28) 김영인, 추선형, 강죽형 (2000). 아동복 선호이미지와 선호 색채 이미지에 관한 조사 연구. *복식*, 50, pp. 25-32.
- 29) 강혜원, 이주현 (1990).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제1보):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1), pp. 31-43.
- 30) 강혜원, 고애란 (1991). 여자 한복의 인상형성연구: 디자인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pp. 211-239.
- 31) 남미우, 강혜원. 앞의 책, pp. 311-326.
- 32) 주소현, 이경희 (1999). 의복, 배경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3(1), pp. 78-89.
- 33) 김재숙, 김희숙 (2004). 자극물의 표현방법에 따른 대인지각에서의 편파. *복식문화연구*, 12(1), pp. 28-40.
- 34) 송선옥, 이인자. 앞의 책, pp. 369-378.
- 35) 이지현. 앞의 책, pp. 75-78.
- 36) 위의 책, pp. 75-78.